

# 북한경제의 발전전략과 성과 : 국제무역을 중심으로\*

金 秀 勇

- |                         |                            |
|-------------------------|----------------------------|
| 1. 서 론                  | 건설전략의 성과                   |
| 2. 북한의 경제발전<br>전략과 무역정책 | 4. 북한 발전 전략의<br>문제점과 변화 전망 |
| 3. 자립적 민족경제             | 5. 결 론                     |

## 1. 서 론

북한경제는 1970년대 중반이래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60년대나 1970년대초까지는 소득의 증가나 공업화의 속도가 매우 빨랐던 북한경제가 1990년대에 와서도 아직 국민 일상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1989년을 輕工業의 해로 정하고 경공업 발전에 주력하여 여러 가지 인민소비품 생산을 적극 늘리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많은 분야에서 소비재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북한은 2천만 밖에 안되는 인구를 위한 양곡 생산도 제대로 하지 못해 외국에서 쌀이나 옥수수 등을 수입하고 있다. 소비자 1인당 하루에 700그램씩 배급되는 양곡 중에서 쌀의 비중은 30%밖에 안 된다는 것은

\*본 연구는 1990年度 文敎部 共產圈研究支授金을 받아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식생활의 질이 얼마나 열악한 것인가를 말해 준다.

비단 식료품이나 의류 등 경공업 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냉장고, TV 등 내구소비재 생산에 있어서도 북한의 수준은 남한에 비해 월등히 뒤진다. 한국의 1/2수준인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북한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력이 높은 품목은 석탄이나 비철금속과 같은 광산품 뿐이다.

북한의 무역은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이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재, 원료, 기술 등을 제대로 도입할 수 없다. 1976년에는 외채상환 불능이라는 최악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매년 무역적자를 보여 10년간의 총 적자는 최근의 한 해 총 수출의 3배에 육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 경제는 모든 분야에서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경제의 침체와 물자의 부족은 남한 경제의 고도성장과 소비생활의 획기적인 향상과 극히 대조적이다. 남북한의 분단 당시의 여건으로 보면 북한이 유리한 편이었다. 남한에 비해 풍부한 지하자원과 공업시설을 가지고 있었고 과잉인구의 압력도 없었다. 경제발전을 위한 노동과 다른 자원의 동원 체제에 있어서도 북한은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었다.

두 경제가 40여년 동안 다른 경제체제하에서 다른 발전 전략에 따라 운용된 결과 북한의 경제는 남한에 비해 이처럼 낙후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本稿에서는 이와 같은 북한 경제의 낙후성의 근본원인을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다음의 제2절에서는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전략이 북한의 국제무역정책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북한 경제의 성과를 발전전략과 연결하여 검토하고, 제4절에서는 최근의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발전전략의 문제점과 변화가능성을 논의한다. 마지막 제5절은 결론 부분이다.

## 2.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과 무역정책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은 自力更生의 원칙과 重工業우선정책이다. 자력갱생의 원칙은 자급자족 경제구조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에서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이 경제정책의 기본 목표이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원료나 중간재는 물론 기술이나 자본에 있어서도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80년의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의 보고에서 金日成은 북한 경제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한 기본 과업으로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역설하였다. 여기서 인민경제의 주체화란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확고히 보장' 하는 것을 말한다.

“인민경제를 주체화한다는 것은 자기나라의 자원과 자기기술에 의거하여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로선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건설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기본적으로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완비하기 위하여서는 수입원료와 연료를 쓰는 공업부문들을 자체의 원료와 연료를 쓰는 공업으로 점차 개편하여야 합니다.”<sup>1)</sup>

즉 북한이 추구해 온 것은 단순히 경제의 대외 의존성을 낮춘다는 것이 아니라 대외 의존의 필요가 처음부터 없는 경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원료와 자재는 물론이고 기술도 자체 조달해야 주체화된 경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무역을 통해 부족한 원료와 자재를 수입하거나 해외로부터의 기술도입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 가능케 하거나 국내기술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정책을 배격하는 것이다. 비교우위에 입각한 무역의

1) 김일성(1980), pp.43~44.

혜택같은 것은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는 사고방식이다.

경제의 주체화와 함께 현대화, 과학화도 주장하였는데 경제의 현대화란 기술수단의 현대화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수단의 현대화를 위해서 당연히 거론되어야 할 외국기술의 습득이나 외국자본의 도입에 대한 언급은 전혀없고 주체적 입장에서 서서 북한 실정에 맞게 그리고 북한의 조건과 가능성을 이용하여 기술수준이 낮은 부문부터 점차 높여갈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주체화와 모순된다고 볼 수 있는 현대화가 같은 自力更生の 맥락에서 모순없이 주장되는 것이다. 경제의 과학화도 마찬가지다. 경제의 과학화란 모든 부문의 생산기술 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 위에 세우는 것이라는데 여기서도 선진외국의 경험을 배우거나 이들과의 교역을 통해 과학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

1984년 9월에 북한은 합영법(合作會社運營法)을 공포하였다. 이는 공업, 건설, 수송, 과학기술, 관광업 등에서 북한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운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이보다 앞서 같은 해 1월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정에서 김일성은 무역을 비롯한 대외경제관계를 널리 발전시켜야 국민의 생활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는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대외 경제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역설하고 모든 부문에서 수출품을 우선적으로 생산하고 납입기일을 어김없이 지키고 계약조건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며 포장을 개선하는 일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sup>2)</sup>

합영법의 실시와 대외경제관계 확대방침의 천명은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방정책을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개방의 필요성은 절실히 인식되었으나 실제의 개방정도는 매우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대외개방을 역설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개방이 될 수 없었다. 김일성

2) 김일성(1984).

은 “자주성을 견지하고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그리고 “자력갱생의 기치 밑에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기초 위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약과 대외무역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였는바<sup>3)</sup>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 그리고 무역의 규모를 크게 확대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는 북한이 외교관계를 맺고있지 않은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기술교류와 경제합작을 널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제국주의자들에 기대를 걸지 말고 발전도상 나라들 사이의 남남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북한의 중요한 정책방향이라는 천명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 나라들의 부원을 약탈하며 이나라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므로 …… 발전도상 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에 기대를 걸지 말고 발전도상 나라들 사이에서 서로 힘을 합쳐 살아나갈 길을 개척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sup>4)</sup>

1980년대 중반에서 북한이 말하는 제국주의 나라라면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선진공업국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제국주의 나라와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개방은 안하겠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를 구축하여 외국과의 상호의존 관계를 필요없게 만드는 것은 북한경제의 초기단계에서 부터의 일관된 목표였다. 중공업 우선정책은 자립경제체제 구축의 초석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즉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농업과 경공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공업이 먼저 발전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중공업이 발전되어야 농업생산을 위한 농기계나 비료를 생산할 수 있고 건설장비가 있어야 주택을 지을수 있으며 배를 먼저 만들어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sup>5)</sup> 북한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등을 수출하고 대신 필

3) 김일성(1984), p.589.

4) 김일성(1984), pp.592-3.

5) Brun and Hersh(1976), pp. 168-9.

요한 자본재 뿐만아니라 소비재도 수입하는 무역형태는 이것이 선진국에 대한 종속관계를 심화시키고 북한으로 하여금 영속적으로 1차산품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비싼 가격으로 수입토록하여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만드느 것이므로 배제되어야 한다고 북한 당국자들은 믿었다. 중공업의 발전은 또한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서도 불가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경제개발도상국에서 자립경제에 대한 열망과 수입대체를 통한 공업화 전략의 추진은 흔히 볼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 그러나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목표나 이를 위한 중공업 우선정책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극단적인 것이었다. 1955년에 이미 북한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전후 복구가 끝나지도 않은 공업화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자립경제라는 목표에 집착하여 왔다.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중심은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있다. 오직 위력한 중공업을 창설하는 조건하에서만 모든 공업, 운수 및 농촌경제의 발전과 사회주의 제도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 ……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는 조건하에서만 경제의 자립성과 국가의 자주적 발전이 보장된다.”<sup>6)</sup>

북한 계획입안자들의 생각은 중공업의 발전이 없이는 경공업의 기계설비를 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생산물의 판매도 국내에서의 구매력 부족으로 외국시장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경제의 대외종속과 발전의 정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공업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모든 부문의 생산을 동시에 촉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된다. 이러한 정책 당국자들의 생각과 함께 1950년대 후반의 주변정세도 북한의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를 더욱 촉진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즉 휴전 이후 소련과 중국으로 부터 들어오던 막대한 원조는 1957-58년이 되어서는 크게 줄었다. 소련은 자신의 경제문제로 원조를 줄일 수 밖에 없

6)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 1956년 4월.

었고 중국은 소위 대약진 운동을 막 시작할 때였으므로 국내 경제문제에 만 전념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북한은 자금자족적 경제운용이 불가피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다.<sup>7)</sup>

### 3.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전략의 성과

1988년 9월의 북한 창건 40주년 기념식에서 김일성은 북한이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여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하였으며 공업화의 역사적 과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를 훌륭히 건설” 하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국가로부터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온갖 물질문화적 조건과 능력에 맞는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무료교육과 무상치료를 비롯한 국가적 사회적 혜택을 받으면서 고르롭게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자랑하였다.<sup>8)</sup>

그러나 북한경제에 관한 모든 통계자료나 연구보고서, 여행기등은 한결 같이 이상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지난 40년동안 거의 한해도 빠지 않고 공업과 농업부문의 비약적인 생산의 증가를 자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국민총생산은 한국의 1/10밖에 안되는 수준에 있다. 1989년의 북한 일인당 GNP는 國土統一院 추계에 의하면 987달러로서 한국의 1/5수준이다.<sup>9)</sup> 그러나 국토통일원의 추정은 오히려 실제보다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소련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일인당 GNP는 400달러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0)</sup>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정무원총리가 발표한 인민경제발전 제3차 7

7) Brun and Hersh (1976), p.265.

8) 김일성 (1988).

9) 국토통일원 (1990a).

10) Vantage Point, November 1990, p.19.

개년(1987-1993)계획을 보면 현재 북한의 소비수준을 잘 알 수 있다. 제3차 계획은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것을 예견하고” 있는바 식의주에 관한 계획목표를 보면 “1,5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며 전체 인민의 식량을 흰쌀로 보장하고” “무엇보다도 방직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 새로운 현대적인 방직설비들을 증설하여 한해 천 생산량을 15억 메터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화려한 청사진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1993년에 가서는 “흰밥과 고기국을 먹고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을 쓰고 행복하게 살아보려던 우리 인민들의 세기적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되게할 것” 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sup>11)</sup>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를 훌륭히 건설한 결과로 1993년에 가서는 겨우 흰밥과 고기국을 먹으며 살 수 있게될 것을 기다리는 정도라면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알 수 있다.

북한의 경제는 1970년대 초까지는 매우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1946-1970년 사이의 공업생산의 연평균 성장율은 19.3%나 되었다. 통계의 과장을 감안하더라도 이 기간중의 성장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國土統一院 추계에 의하더라도 북한의 일인당 GNP는 1970년까지는 한국보다 높았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경제적 전란보다도 혁명적 열기와 애국심, 그리고 강제에 의한 노동의 동원이 성공적이었고 중국이나 소련에서의 원조가 큰 규모로 유입되었기 때문이었다.<sup>12)</sup> 전후의 폐허에서 새롭게 건설하는 단계에서는 자급자족적 경제체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어차피 자본재의 국내생산이 없고 국내기술도 없어 외국에서 들

11) 리근모(정무원 총리) (1987), pp.819-825.

12) 북한에서 천리마운동이 시작된 것은 1959년이었다. 한해전에 중국에서는 대약진운동이 시작되었다. 천리마운동은 개인 노동자나 노동자집단을 사이에 ‘천리마 영웅’ 칭호를 위한 경쟁을 유발하여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생산물의 품질은 별도의 문제였다. 역시 1959년에 시작한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도 질은 무시한채 공작기계 대수를 크게 증가시키는데 성공했다.

여울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성장을 결정짓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와 얼마나 많은 자원이전이 외국으로부터 이루어 지느냐 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70년대 부터의 북한경제의 성과가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의 결과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약 20년간의 북한경제의 실적은 그 이전에 비해서나 같은 기간의 한국의 실적과 비교하여 극히 저조하다. 다음의 <표 1>은 제1차 6개년계획 수행실적 보고에 나타난 1970년대의 생산능력과 제2차 7개년 계획의 실적을 비교한 것이다. 약10년의 기간동안의 성과를 보면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가장 크게 생산이 늘어난 것이 전력과 강철의 생산이 1.8배 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평가치를 보면 1984년의 생산은 오히려 10년전에 북한이 도달했다고 자랑한 생산수준이나 생산능력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품목들은 북한이 자립경제 달성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둔 부문임을 고려할 때 생산실적은 더욱 저조하다.

<표 1> 북한의 생산실적의 변화 (생산능력 또는 생산고지 점령기준)

	1차 6개년 계획실적	2차 7개년 계획의 목표와 실적 (1984)		
		목표치	발표치	평가치
전 력(억KWH)	280(1975)	560-600	498	245
석 탄(만톤)	5,000(1975)	7,000-8,000	7,000	3,600
강 철(만톤)	400(1976)	740-800	740	430
화학비료(만톤)	300(1975)	500	500	336
시 멘 트(만톤)	800(1976)	1,200-1,300	1,200	892
직 물(억 m)	6(1976)	8	8	6.2
트 래 커(만대)	3(1973)	4.5	-	3.2
공작기계(만대)	3(1972)	5	-	3

자료 : 내외문제연구소(1980), p.177.

이태욱(1990), p.166.

리근모(1987), pp.804-811.

197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停滯는 북한의 국제무역에서도 잘 나타난다. 1953년 부터 1970년 사이에 북한의 수출과 수입은 경상가격으로 각각 10배로 늘어났다.<sup>13)</sup> 즉 1970년까지는 북한의 국제무역은 한국에 못지않게 빠르게 성장하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으나 1970년대와 80년대에 무역의 성장은 크게 둔화되어 북한의 무역규모는 한국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북한의 경제규모에 비해서도 매우 작게되었다. 1970년 한국의 수출에 비해 북한의 수출은 2.5분의 1이었으나 1989년에는 겨우 32분의 1밖에 안되었다.

북한은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민족경제 건설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추구해왔으므로 북한의 국제무역이 대외지향적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해온 한국이나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당연히 낮아야 될 것이기는 하다. 특히 북한은 소위 有無相通의 원칙에 따라 북한이 필요로 하되 국내에서 생산될 수 없는 품목을 입수하기 위하여 무역이 필요하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자본재와 원료, 중간재가 수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입을 가능하게 할 수출의 증가가 매우 부진했다는 것이다.

1970년 이래 북한의 무역수지는 거의 언제나 적자를 나타냈다. Chung(1986)에 의하면 1970년대에는 1978년 한 해에만 흑자였다. 1980년대에는 <표 2>에서 보듯이 매년 적자였고 적자의 크기는 계속 증가했다. 1980년대 10년 동안 무역적자의 누계는 58억 달러나 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1976년에 사회주의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외채지불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1989년말 현재 외채총액은 67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sup>14)</sup> 1989년도 북한의 총 수출이 19억 5천만 달러이므로 외채 규모는 연간 수출총액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sup>15)</sup>

13) Chung(1986).

14) 국토통일원(1990a).

15) 한국의 경우 1989년말 현재 총외채는 그해 수출액의 47%였고 순외채를 기준으로 하면 이 비율은 5%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북한 경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의 자립도가 높아져서 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경제가 되는 대신 외국에서 도입되어야만 되는 물자와 기술 조차도 제대로 도입할 능력이 없어 외화 부족이 성장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는 상태가 되었다. 외화부족으로 원료나 자본재, 기술등을 도입할 수 없으므로 자급자족적 경제의 건설은 더욱 더 요원한 목표가 되어버린다.

〈표 2〉 북한의 국제무역, 1980-89

단위 : 백만 달러

연 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1980	1,594	1,836	-242
1981	1,072	1,554	-482
1982	1,258	1,577	-319
1983	1,117	1,438	-321
1984	1,204	1,398	-194
1985	1,172	1,770	-598
1986	1,357	2,092	-735
1987	1,647	2,500	-853
1988	2,033	3,211	-1,178
1989	1,946	2,845	-899

자료 : 국토통일원(1989a, 1989b 및 1990a).

북한의 자력갱생과 중공업 중시의 경제전략이 실패한 사실은 북한 무역의 상품구성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북한은 처음부터 중공업의 토대가 튼튼해야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고 개발도상국이 원료를 수출하고 자본재를 수입하는 무역패턴은 제국주의자들에게 부를 약탈당하는 것이라고 이를 배격하였다. 그러나 지난 40여년간의 중공업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鑛物, 非鐵金屬, 수산물 등을 수출하고 중화학제품을 수입하는 무역패턴을 지속하고 있다. Chung(1986.pp.93-96)은 북한 무역의 상품구성이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 사이에 매우 크게 변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볼 수 없다. 그가 말하는 중요한 변화는 수출에서 광물자원이 대부분이었던 것이 금속이 대부분인 것으로 변했다는 것이며 수입에서는 연료및 연료유의 수입비중이 늘어나고 기계류의 수입비중이 여전이 가장 높지만 전보다 낮아졌다는 정도다.

〈표 3〉 소련, 중국, 일본과 북한의 주요 무역상품

	5대 수출 품목	5대 수입 품목
대 소련 무역(1989)	외투, 의복 아연강재 마그네샤 코팅카 축전지 금속절삭기계	봉제공업제품용 재료및 부품 원유 석탄 모직물 동력설비
대 일본 무역(1989)	아연괴 철 또는 비합금강의 프래트틀 송이버섯 무연탄 계	승용차 화물자동차 기체펌프 방적준비기계 TV수상기
대 중국 무역(1988)	무연탄 철및 강철 어패류 금속성 광석 금속성 광물제품	역청탄및 코크스 석유및 석유제품 원동기기 곡식및 가공품 채유용 곡물

자료: 姜正模 (1991), 표 III-8 및 표 III-9a.

國土統一院 (1990b), 표2 및 표3.

북한 무역의 약 70퍼센트 정도는 소련, 중국, 일본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데 이들과의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상위 5개 품목들을 보면 〈표 3〉과 같다. 즉 북한은 1차산품이나 1차 산품의 간단한 가공에 의한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대신 기계및 운수장비, 석유제품, 연료등을 수입

하는 무역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출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증가했지만 그러나 이들 공산품은 대부분이 비철금속, 철강, 비금속광물제품등 SITC 6(원료별 제품)에 속하는 것이고 SITC 5(화학공업 생산품)나 SITC 7(기계및 운수설비)에서는 여전히 수출은 별로 없고 수입만 크게 하는 무역이 계속되었다.

#### 4. 북한 발전 전략의 문제점과 변화 전망

위에서의 북한 경제발전 전략과 그 성과에 대한 논의는 이미 북한이 택한 전략의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경제가 외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장은 정체되고 국민생활은 아직도 기본수요도 충족되지 않은 수준에 머물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정책 결정자들이 처음부터 글자 그대로의 자립경제 건설에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이다. 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자급자족적인 경제구조를 원했기 때문에 중공업의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었고 외국과의 상호의존 관계를 종속관계로 판단했기 때문에 극히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추구하게 되었다.

북한 경제체제의 초기 단계에는 철저한 통제와 계획하에서 모든 가능한 생산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고 애국심과 사회주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열의에 호소하여 빠른 생산의 증가가 가능했다. 남북의 분단 당시에는 북한이 공업설비나 지하자원의 부존등에 있어 남한보다 유리했고 과잉 인구의 문제도 없었다. 따라서 1960년대 말까지는 북한의 경제는 남한보다 진보의 속도가 빠른것 처럼 보였다. 그러나 북한 경제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있었으나 그 효과가 다른 요인들에 가려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다.

북한은 자원이나 기술의 부존상태로 보아, 그리고 경제규모로 보아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로서는 지속적 발전을 할 수 없는 여건에 있었다. 이제

까지 역사적으로도 북한과 같은 소규모 저개발국이 자급자족적 경제를 추구하여 성공적인 성장결과를 보인 예가 없다. 2차대전 이후 비슷한 상태에서 출발할 수많은 개발도상국 중에서 오늘날 중진국 수준에 있거나 또는 중진국 수준에 거의 도달한 나라들 중에는 북한처럼 자급자족적 경제를 추구하며 중공업위주의 수입대체 전략과 대외적 폐쇄정책을 일관되게 실시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무역정책에 국한시켜 보더라도 외부지향적인 무역정책을 실시한 나라들과 내부지향정책을 실시한 나라들의 평균 성장율은 2배 내지 3배의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up>16)</sup>

북한은 농업과 경공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공업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믿으며 기계, 화학, 철강등의 분야에 계속 역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분야에서도 오늘날 북한은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높은 기술수준, 우수한 품질, 낮은 생산비를 가능케 하는 대규모 생산중 어느 하나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처음부터 양적인 목표달성에 집착했다. '천리마 운동',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에서부터 보다 최근의 '200일 속도전'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계속적으로 생산량 목표의 초과 달성이나 생산량 목표의 조기달성등 양적 확대에 치중하는 캠페인을 계속 벌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특히 내용보다는 표면적 실적이 중시되는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질의 개선에 대한 노력은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

북한은 생산기술에 있어서도 외부로부터의 도입을 꺼려했다. 자력갱생의 원칙을 지키면서 외국과의 기술교류를 실현한다는 것이 목표였으므로 북한의 자주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의 기술도입은 배제될 수 밖에 없었다. 북한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제3세계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기술교류도 비교적 최근에 강조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오로지 자력갱생만을 강조하였다. 위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16) World Bank (1987), Ch.5. 1963-73 사이에 외부지향적 국가와 내부지향적 국가의 연평균 성장율은 각각 9.5%와 4.1%였고 1973-85 사이에는 각각 7.7%와 2.5%였다.

김일성(1980)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야 한다면서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자기나라의 자원과 자기나라의 기술에 의거하여'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대화, 과학화를 말하면서 외국 의 선진기술을 빨리 습득해야겠다는 언급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우리는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비롯한 온갖 그릇된 사상경향을 철저히 반대하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전군중적 운동으로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와 같은 사상이 지배하는 한 북한이 고도기술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일관된 중공업 우선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철강, 시멘트, 비철금속, 비료등 재래의 표준기술만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만 어느정도 생산이 이루어질 뿐 첨단기술을 요하는 반도체, 전자, 운수장비, 석유화학등의 산업에서는 생산실적이 없거나 초보적 단계에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sup>17)</sup>

중공업 육성에 있어 북한은 해외시장을 겨냥하지 않고 국내시장의 수요 충족이라는 측면에만 관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생산규모는 작을수 밖에 없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아직도 경제수준이 낮아 작은 수준의 국내수요 밖에 없는 분야, 예컨대 승용차, 석유화학제품 등의 생산은 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설사 기술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매우 비경제적이 될 수 밖에 없다.

북한이 자급자족 경제를 목표로 한다하더라도 수출을 위한 생산을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이었다. 중공업등 국내수요 충족을 위한 생산을 촉진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외화 획득을 위한 수출생산에도 역점을 두었어야 했다. 1984년 이후에야 수출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표 3>에서 보듯이 북한은 최근 소련으로부터 의류생산의 원료와 부품을 수입

17) 북한은 현재의 3차 7개년 계획에서 기계공업, 전자, 자동차 공업부문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1988년에는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전자계산기, 자동화장치, 로봇등 전자공학 분야의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들의 생산이나 기술수준은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내외통신(1990. 6. 22) 참조.

· 가공하여 완제품을 소련에 수출하는 무역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은 북한이 일찍부터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일찍부터 했다면 북한은 세계시장에서 성장에 필요한 많은 자극과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북한의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은 기간중 무역의 크기가 3.2배로 늘어날 것으로 목표를 정했다. 기계, 비철금속, 의류, 신발, 유리제품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수출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1989년의 수출은 1986년에 비해 겨우 44퍼센트가 늘어난 실적을 보였다. 즉 북한은 이제 수출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극히 부진한 것이다. 낮은 기술수준, 낮은 품질수준, 그리고 낮은 노동숙련도 때문에 북한이 공산품의 수출을 급속히 증가시킨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수출생산을 위한 설비의 부족, 수송, 통신, 에너지공급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생산비용이 높을 수 밖에 없다.<sup>18)</sup> 에너지 부족과 수송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7개년 계획에서도 우선적인 자원배분이 필요한 분야로 강조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생산설비의 증가와 노후시설의 교체, 노동자의 훈련, 새로운 기술의 도입등이 북한이 원하는 수출의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고 이들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투자가 필요하다. 북한은 국내자본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1984년 부터 합영법을 시행하여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합영법의 실적은 매우 부진하다. 북한은 1990년 5월 현재 합의가 되었거나 이미 조업중인 합영기업의 수는 100개가 넘었으며 조총련 뿐만 아니라 소련, 중국, 홍콩, 이탈리아, 프랑스등 외국기업과의 합작도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sup>19)</sup> 그러나 조총련을 제외한 외국기업과의 합작에 관해서는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합영기업은 조총련 기업과의 합영이며 1989년말 현재 합의 건수는 98건, 이 중에서 조업중인 기업은 41건 이었다. 이들 조총련 기업의 북한에 대한 투자

18) 북한 수출성장의 장애요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Kim(1990)를 참조.

19) EIU(1990), p.40.

총액은 113억円이었다.<sup>20)</sup> 즉 합영법 제정이후 6년째가 되는데도 해외로부터의 투자 총액은 소련등 일부 외국으로부터 소규모 투자를 제외하고 볼 때 1억 달러도 안되는 수준이다. 이러한 수준의 해외자본 유입으로는 생산설비의 증가, 노동의 질적 향상, 새로운 기술도입등 북한 경제가 수출확대를 위해 절실히 필요로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의 수출확대 전망은 여전히 밝지 못하다. 그러나 조총련계의 합영기업이 북한에서 생산한 공산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무역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이들 합영기업의 수출은 늘어날 전망이다.<sup>21)</sup>

1989년의 북한의 수출/GNP 비율은 9.2퍼센트였다. 이비율은 개발도상에 있는 소규모 경제로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북한이 최근에 수출확대에 주력해 온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북한이 정체상태에서 벗어나 빠른 성장을 회복하는 길은 수출확대 밖에 없다. 수출확대를 위해 필요한 개혁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에서 설사 동구나 소련에서와 같은 정부 통제의 축소, 개인 소유의 확대, 시장경제의 확대등의 방향으로 내부적인 개혁이 실시된다 해도 이들이 수출확대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북한 경제는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북한 경제는 외부로부터의 막대한 크기의 자본재, 원료, 기술의 유입을 필요로 하는데 오늘날 이들은 수출을 통해서 획득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까지와는 다른 빠른속도의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기본 전략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주의 국가나 저개발국들과 교류를 약간 증가시키는 정도로서는 북한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 북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美國, 西歐, 日本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중심부와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자본을 끌어들이 수 있으며 첨단기술을 배울 수 있다. 즉 단순한 국내에서의 경제 운용방식의 변경만으로는 부족하고 세계경제 성

20) 국토통일원(1990b), p.101.

21) 예전대 조총련계 기업인 모란봉 합작회사는 1990년에 신사복 15만벌을 日本에 수출했다. 매일경제신문, 1991. 4. 19.

장의 중심세력과 통합되는 경제가 되도록 개혁하여야 한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국가와의 무역이 중요시되고 실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이유는 이들 무역이 원조적 성격이 강하고 硬貨결제 무역이 아니라 주로 물물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인 소련은 북한의 주요 수입품인 원유, 철강, 석유화학제품, 섬유 등을 국제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공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최근에 크게 축소되었고 소련과 북한 사이에 체결된 <1991년도 무역및 경제협조에 관한 협정>에 의하면 1991년 부터는 쌍방간 무역및 경제협조를 태환성 화폐와 국제가격에 기초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sup>22)</sup> 북한이 소련등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국제가격에 기초하여 태환성 화폐를 매개로 하여 무역을 해야한다면 사회주의 국가와의 무역의 장점은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북한의 무역적자 규모는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보다 적극적으로 비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확대, 특히 수출증가를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우선은 홍콩, 싱가포르, 대만, 서독 등 이제까지 무역거래가 어느 정도 있었고 제국주의자라는 비난이 잘 어울리지 않는 국가들과의 무역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현재 여건하에서는 日本이나 美國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무역의 획기적 증가가 필요하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무역의 확대외에 내부적으로는 무역에 대한 기본시각을 바꾸는 것이다. 比較優位 또는 比較生産費의 관점에서 무역을 통한 생산재나 원료의 획득이 자급자족에 의한 획득보다 얼마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가를, 그리고 자급자족은 오히려 자립경제 건설을 늦추는 정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는 물론 현재의 북한 지배층 내부에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난관이 극복되지 못하여 국민생활의 궁핍이 계속된다면 이는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구성 변화와 상관없이 북한의 발전전략의

22) 조선일보, 1991. 5. 9.

어느정도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것이다.

## 5. 결 론

지난 40여년간의 북한 경제정책을 지배해 온 자력갱생의 폐쇄주의는 실패했다. 농업, 경공업, 중공업 어느 한 분야에서도 자립경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동원된 자원과 노력, 그리고 잠재력에 비해 어느 다른 나라 보다 못한 성장 성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경제적 실패의 만회를 위해 5,6년 전부터 무역의 확대와 외국자본의 도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는 부진했다. 이는 기본적인 폐쇄정책에 변동이 없었고 자본이동과 무역의 혜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1989년 동 유럽국가들에서의 민주화와 개방화의 대 변혁 이후 북한은 그 동안에 개방화 노력으로부터 다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전의 수년과는 달리 1990년과 1991년의 김일성 신년사에서 서방국가들과의 무역증대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식 사회주의로서는 경제문제를 해소할 수 없음을 점차 더욱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인식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북한은 대 서방 개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日本이나 美國과의 관계개선을 이룩하여 이들과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이들과의 교류와 북한 경제상태의 호전은 한국과의 경제교류의 확대를 보다 자연스럽게 보이게 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대는 양측에 다 같이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이며 통일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姜正模,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 1991, 對外經濟政策研究院 政策資料 91-02.
- 國土統一院, 1988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1989. 9. (1989a).
- 國土統一院, 북한경제개관 1989. (1989b).
- 國土統一院, 1989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1990. 9. (1990a).
- 國土統一院, 북한경제와 무역환경, (1990b).
- 김일성,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1980. 10.10.
- 김일성, “남남협조와 대외경제 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1984. 1. 26.
- 김일성,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 하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40주년 경축보고대회, 1988. 9. 9.
- 내외문제 연구소, 북한은 어디로 가나, 1980.
- 리근모(정무원 총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3차 7개년 (1987-1993) 계획에 대하여”, 1987년 4월,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 資料集>, 第IV輯. 1988, PP.803-841.
- 이태욱 편, 북한의 경제, 1990.
- Brun, Ellen and Jacques Hersh, North Korea : A Case Study i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Monthly Review Press, 1976.
- Chung, Joseph S., “Foreign Trade of North Korea : Performance, Policy and Prospects”, in R. A. Scalapino and Hongkoo Lee eds., North Korea in a Regional and Global Context, 1986, Univ. of California.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 China, North Korea, No. 2, 1990.
- Kim, Sooyong, “International Trade of North Korea : Policies and Obstacles”, 東亞研究, 제21집, 1990. 12.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7.